

# 몬스터 이론을 통한 욥기의 몬스터들 연구\*

김준(명지대)

---

## 1. 들어가는 말

본고의 목적은 최근 문화를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중요하게 사용하는 몬스터 이론을 통하여 욥기에 나타난 몬스터의 문학적 역할과 신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다. 욥기는 다양한 몬스터들을 언급한다. 욥기는 리워야단, 탄닌, 얄, 라합, 날렵한 뱀, 베헤못 등의 몬스터들을 포함한다. 몬스터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생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 혹은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들은 실재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신화적인 존재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욥기의 몬스터들의 특징은 성경 이외의 문학과 문화에 나타나는 몬스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8646).

터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

몬스터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몬스터에 대한 연구가 ‘몬스터 이론’이란 용어로 학문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제프리 코헨(Jeffrey Jerome Cohen)의 *Monster Theory: Reading Culture*가 출판되면서부터이다.<sup>1</sup> 코헨의 연구 이후 약 30년 동안 몬스터 이론은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몬스터 이론은 정신분석학, 인류학, 문학 비평의 영향을 받아 문학, 인종, 성별, 사회, 문학을 이해하는 방법론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sup>2</sup> 국내에서 몬스터 이론은 문학과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십여 년 전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sup>3</sup>

구약학에서 몬스터에 관한 연구는 구약 신학의 주요한 주제는 아니었기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구약 학자들은 혼돈과의 전투(Chaoskampf) 모티프 연구를 중심으로 본문에서 몬스터의 정체성과 의미, 창조와 종말에서 몬스터의 출현, 고대 근동의 신화 속 몬스터들과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 몬스터에 관련된 연구를 이어왔다.<sup>4</sup> 국내 구약

- 
- 1 Jeffrey Jerome Cohen (ed.), *Monster Theory: Reading Cul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 2 Asa Simon Mittman and Marcus Hensel, *Classic Readings on Monster Theory: Demonstrare* Vol 1 (Leeds: Arc Humanities Press, 2018), x.
  - 3 최애영, “여성은 왜 괴물로 형상화 되어왔는가? 바바라 크리드,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영화, 페미니즘, 정신분석학』”, 『여성문화연구』 21호 (2009), 309-320; 추재욱,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자연과 과학의 경계에서”, 『영미문화』 9권 (2009), 325-343; 유현주, “괴물, 여성, 기계-프로이트의 언캐니 이론과 우리 안의 타자들”, 『독일현대문학』 37권 (2011), 241-262; 주기화, “호모 몬스터쿠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인문논총』 35권 (2014), 279-299; 문형준, “괴물서사란 무엇인가?-괴물서사에서 파국서사로 나아가기 위한 일곱 개의 단편”, 『비교문화연구』 50권 (2018), 31-51.
  - 4 존 D. 레벤슨,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유대교의 드라마』 (홍국평, 오윤탁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Hermann Gunkel,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a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1 and Revelation 12*, K. William Whitney Jr. tr. (Grand Rapids, MI: Eerdmans, 2006); Batto, Bernard F., *Slaying*

학계에서도 몬스터와 관련하여 몬스터 명칭의 번역, 몬스터의 정체성 및 본문에서의 역할, 수사학적 비평, 혼돈과의 전투 모티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다.<sup>5</sup> 그리고 최근 해외 구약학에서는 몬스터 이론을 통한 구약성경의 몬스터 연구가 시작되었다.<sup>6</sup> 몬스터 이론은 기존의 구약의 몬스터 관련 연구와 함께 구약성경의 몬스터에 함의된 정치, 심리, 신학, 문학적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구약학에서는 아직 몬스터 이론을 활용한 구약성경의 몬스터 연구 사례가 전무하다.

본고는 몬스터 이론의 초석을 마련한 코헨의 몬스터 이론을 중심

---

*the Dragon: Mythmaking in the Biblical Tradi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2); John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Echoes of a Canaanite Myth in the Old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Gregory Mobley, *The Return of the Chaos Monsters—and Other Backstories of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2012).

- 5 김은정, “구약성경의 탄닌 이미지와 한 중 번역 연구”, 『성경원문연구』 38호 (2016), 72-96; 김정우, “구약성서에 나타난 신화적 짐승 리워야단, 라합, 용의 영상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5호 (1999), 7-18; 김준, “욥기에 나타난 베헤못의 정체성과 역할 (욥기 40:15-24)”, 『서양고대사연구』 59권 (2020), 177-199; 방기민, “‘하나님의 싸움’ 모티프 연구로의 초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집 (2020), 7-40; 안근조, “욥과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욥 40-41)에 대한 수사비평적 읽기”, 『신학사상』 126집 (2004), 57-78; 유윤중, “우가릿 신화에 나타난 신들간의 전투와 구약성서의 활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집 (2004), 77-98.
- 6 Timothy K. Beal, *Religion and Its Monsters*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2); Amy Kalmanofsky, *Terror All Around: Horror, Monsters, and Theology in the Book of Jeremiah*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390; New York and London: T & T Clark, 2008); S. Marzouk, *Egypt as a Monster in the Book of Ezekiel* (FAT, 2/76; Tübingen: Mohr Seibek, 2015); Brandon R. Grafius, “Text and Terror: Monster Theory and the Hebrew Bible”,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16 (2017), 34-49; Kim Paffenroth, “On the Impossibility and Inevitability of Monsters in Biblical Thought”,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74 (2020), 120-131; Ryan S. Higgins, “The Good, the God, and the Ugly: The Role of the Beloved Monster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Hebrew Bible”,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74 (2020), 132-145; Kelly J. Murphy, “Leviathan to Lucifer: What Biblical Monsters (Still) Reveal”,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74 (2020), 146-159; Madadh Richey, “Goliath among the Giants: Monster Decapitation and Capital Display in 1 Samuel 17 and Beyon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5 (2021), 336-356.

www.kci.go.kr

으로 국내 구약 학계에 몬스터 이론을 간략히 소개하며 욱기 몬스터 들 출현의 문학적 역할과 신학적 의미를 연구한다. 본고는 몬스터 이론을 통해 욱기 몬스터들 출현의 신학적 의미를 연구하기 위하여 크게 두 부분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코헨의 *Monster Theory: Reading Culture*(1996)를 중심으로 몬스터 이론을 소개하여 욱기의 몬스터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둘째, 본고는 몬스터 이론을 통하여 욱기에 나타난 몬스터들의 문학적, 신학적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 2. 몬스터 이론: 코헨의 몬스터 이론을 중심으로

몬스터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몬스터를 생각할 때 드라큘라, 좀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키메라, 키클롭스, 베오울프, 리워야단, 이무기 등의 존재들을 떠올린다. 그들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들의 모습은 기형적이고 흉측하게 느껴진다. 그들은 인간이 분류한 일반적인 종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거나 혼합되어 있다.<sup>7</sup> 그들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성과 강력한 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다.<sup>8</sup> 몬스터들의 주거지는 인간이 안정을 느끼는 범주를 벗어난 곳에 있다. 그들

7 베어울프는 사람인 동시에 늑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종의 범주가 혼합된 몬스터이다. 드라큘라와 좀비는 죽어 있는 동시에 살아 있어 생명과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범주를 위협하는 몬스터들이다. Carroll, Noël, *The Philosophy of Horror or Paradoxes of the Heart*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0), 32-33; Brandon R. Grafius, 윗글, 38-39;

8 노엘 캐롤(Noël Carroll)은 공포를 유발하는 몬스터의 세 가지 주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첫째, 몬스터는 개인 혹은 사회에 위협이 된다. 둘째, 몬스터는 규범적 범주에 속한 순수한 종이기 보다는 혼합된 종의 특징을 가진 존재이다. 셋째, 몬스터는 사회의 주변부에서 기원하여 타자 혹은 외부인으로 사회로 침투한다. Noël Carroll, 윗글, 28-33.

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인 지하, 습지, 광야, 깊은 동굴이나 산을 주거지로 한다. 몬스터들은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가치체계 밖에 있다. 그들은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타자로 간주된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몬스터들의 출현은 안전, 질서, 건강, 가치체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경험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는 가치체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존재를 경험할 때 두려워하며 위협을 느낀다. 또한 몬스터에 대해 혐오와 거부감을 느낀다.<sup>9</sup> “몬스터들은 신체적으로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위협적이다.”<sup>10</sup>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체계화하여 이해하는 방식을 위협하기 때문에 불안을 유발한다.”<sup>11</sup>

이러한 몬스터들은 정치, 사회, 문화의 특정한 시기에 창조된다. 프랑켄슈타인의 몬스터는 19세기 초 연금술에서 과학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창조되었다. 프랑켄슈타인의 몬스터는 과학을 통해 새로운 실험을 희망하는 한편 넘지 말아야 할 영역을 침범했을 때의 두려움을 대변한다. 드라큘라는 19세기 말 동유럽 이민자들이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던 시기에 함께 런던으로 들어온다. 드라큘라에 대한 이국적인 묘사와 살인은 당시 이민자들이 살던 빈민가에서 고조되고 있던 범죄율과 관련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

이처럼 최근 인문학에서 몬스터에 관한 연구는 몬스터의 유형이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몬스터를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 몬스터가 창조되는 문화의 특징적인 시점, 몬스터 출현의 의미 등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몬스터 이론은 “몬스터들을 창조한 문화들을

9 Kristeva Julia,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3-4.

10 Carroll, 윗글, 34.

11 Grafius, 윗글, 34.

읽는 방법”으로서 한 문화가 몬스터를 창조한 것을 통해 우리는 그 문화의 가치체계, 욕망, 금기, 두려움을 읽게 된다.<sup>12</sup>

코헨은 *Monster Theory: Reading Culture*에 포함된 그의 소논문 “Monster Culture (Seven Thesis)”에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명제를 통해 몬스터 이론을 소개하며 향후 몬스터 이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코헨의 일곱 가지 명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13</sup> 첫째, 몬스터는 문화의 특정한 순간에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욕망, 불안, 환상”의 감정이 구체화하여 기괴한 생명체로 탄생하는 문화의 산물이다.<sup>14</sup> 둘째, 몬스터는 공격을 받아 사라지지만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나타난다. 셋째, 몬스터는 일반적인 한 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여러 종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다. 혼종의 몬스터는 인간의 경험적 지혜와 전통적인 가치체계의 구분을 파괴하고 새로운 인식 방법을 요청한다. 넷째, 몬스터는 우리 안에 공존하면서도 우리와 다른 “문화적, 정치적, 인종적, 경제적, 성적” 차이를 가진 타자의 형상화이다.<sup>15</sup> 이러한 차이는 특정한 문화와 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차이를 몬스터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다섯째, 몬스터는 기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과정에서 탄생하기에 몬스터는 어떤 미지의 지식, 행동, 장소에 도달하려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 역할을 한다. 여섯째, “몬스터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상 일종의 욕망이다.”<sup>16</sup> 몬스터는 금지된 영역을

12 Cohen, *읽글*, 3; Grafius, *읽글*, 34.

13 코헨은 일곱 가지 명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몬스터의 몸은 문화의 몸이다.” 둘째, “몬스터는 언제나 탈출한다.” 셋째, “몬스터는 범주 위기의 선구자이다.” 넷째, “몬스터는 차이의 대문에 거주한다.” 다섯째, “몬스터는 가능성의 경계들을 감시한다.” 여섯째, “몬스터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상 일종의 욕망이다.” 일곱째, “몬스터는 … 되어감의 문지방에 서있다.” Cohen, *읽글*, 3-25.

14 *읽글*, 4.

15 *읽글*, 7.

16 *읽글*, 16.

넘어서는 자유로움이 있다. 특정한 지식, 행동, 장소는 인간에게 금지된 영역인 동시에 그 영역을 넘어서길 원하는 유혹적인 곳이기도 하다. 몬스터는 금지된 영역으로부터 자유하거나 넘어서려는 환상이 투영되기도 한다. 일곱째, 몬스터가 달아났다가 다시 나타날 때는 “자기 지식과 인간의 지식, 그리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성한 담론을 간직하여” 돌아온다.<sup>17</sup> 돌아온 몬스터는 인간에게 세상의 인식, 인간의 가치체계, 문화적 가정들에 대해 질문을 야기하며 재평가를 요구한다.

코헨은 몬스터 이론을 하나의 체계적 이론으로 제안하기보다는 몬스터를 통해 그 몬스터를 만든 문화를 이해하는 유용한 방법으로서 몬스터 이론이란 용어를 제안한다. 브랜든 그라피우스(Brandon R. Grafius)의 견해처럼 “몬스터 이론은 읽기 방법론이 아니라 서사의 괴물 같은 등장인물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범주를 제공하여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렌즈에 가깝다.”<sup>18</sup> 코헨은 일곱 개의 주요한 명제들을 엮어서 몬스터 이론이란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몬스터를 이해하는 주요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몬스터 이론은 욕기 몬스터의 문학적 역할과 신학적 의미를 연구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몬스터 이론은 몬스터들이 문학작품에서 언급될 때 의미 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그들의 출현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제안한다. 코헨은 몬스터의 라틴어 어원 *monstrum*이 “무엇을 드러내다”, ‘무엇을 경고하다’는 표시로서 해석을 요구한다”고 이야기 한다.<sup>19</sup> 구약에서 몬스터들을 언급할 때는 그들의 출현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가 간직한 두려움, 혐오, 욕망, 환

---

17 윗글, 20.

18 Grafius, 윗글, 37.

19 Cohen, 윗글, 4.

상, 가치체계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또한 몬스터의 출현은 신적인 뜻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종교적 역할을 한다. 티모시 빌(Timothy K. Beal)은 몬스터의 라틴어 어원 *monstrum*이 동사 *monstrare*(“보이다” 혹은 “드러낸다”) 혹은 *monere*(“경고하다” 혹은 “예고하다”)와 관련된 것에 착안하여 몬스터는 종종 신적인 뜻이나 심판에 대한 전조를 나타낸다고 제안한다.<sup>20</sup> 몬스터들의 등장은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동시에 신적인 뜻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약에서 몬스터들은 이유 없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몬스터가 출현하게 되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 몬스터는 인간사회와 창조세계를 혼돈하게 하는 세력으로 이해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태고적 전투를 치른 존재로 표현되기도 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 가운데 몬스터는 이스라엘인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가치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구약의 몬스터는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하지 않음에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다.

### 3. 욥기의 몬스터들

욥기는 의로운 신앙의 소유자이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인 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욥기 내레이터는 욥의 성품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소개한다(욥 1:1). 이러한 욥에 대한 소개는 성경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인 하나님에 의해 두 차례 더 반복해서 나타난다(욥 1:8; 2:3). 하나님과 내레이터는 욥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온전한 인물로 묘사한다. 욥기 서

20 Beal, *윳글*, 6-7.



론은 욱의 신앙과 성품 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재산도 온전함을 보여준다. 욱은 일곱 아들과 세 딸, 칠천 마리의 양과 삼천 마리의 낙타, 오백 겨리의 소와 오백 겨리의 암나귀, 많은 종이 있다. 내레이터는 욱의 온전한 자녀와 재산을 의미하기 위해 자녀와 그의 소유물들을 “모두 욱의 세계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3, 7, 10)로 기록하였다.”<sup>21</sup> 욱의 자녀와 소유물은 병행하는 두 숫자를 합했을 때 십의 숫자로 질서 있게 반복해서 나타난다(욱 1:2-5). 욱기 서론은 욱을 신앙적 윤리적으로 온전한 인물이며 동시에 화목한 가정과 재물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욕의 온전함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신앙을 시험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하나님은 욱의 신앙의 이유를 의심하는 사탄에게 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 이 시험은 욱의 자녀를 죽게 했고, 재산을 잃게 했으며, 건강을 악화시켰다. 욱의 온전하고 질서 있는 삶이 무너졌다. 욱기의 몬스터들은 이러한 욱의 혼돈의 시간에 언급된다. 욱기는 리위야단(3:8; 41:1), 탄닌(7:12), 암(7:12; 26:12; 참조. 9:8; 38:8), 라합(9:13; 26:12), 날렵한 뱀(26:13), 베헤못(40:15) 등의 다양한 몬스터들을 언급한다.

### 1) 몬스터의 소환 (욱 3:8)

침묵의 칠일이 지난 후 욱은 입을 열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한다. 욱은 고난과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모태에서 죽었다면, 죽어서 지하 세계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한다. 욱은 처참한 현실의 고난 가운데 전통적인 가치를 전복시키듯 “생명보다 죽음, 빛보다 어두움, 질서보다

21 Samuel E. Balentine, *Job* (Macon, Georgia: Smyth & Helwys Publishing, 2006), 47.

혼돈, 현세의 삶보다 지하세계의 삶”을 선호하는 것처럼 언급한다.<sup>22</sup> 욥은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 사용된 언어와 표현(“빛이 있으라”, 창 1:3)을 사용하여 창조세계의 질서를 저주한다(“어둠이 있으라”, 욥 3:4).<sup>23</sup> 욥기 3장은 욥이 기존에 누렸던 평화, 평안, 안식이 없고, 두려움, 무서움, 불안함만이 가득한 상황을 표현한다(욥 3:25-26). 스티븐 아스마(Stephen T. Asma)에 따르면 “우주적 공포, 불안, 절망은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안전한 구조와 의미가 세계에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sup>24</sup> 욥의 두려움과 불안은 자신이 견지하던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몬스터 리워야단을 처음으로 언급한다(욥 3:8).

구약에서 리워야단은 바다를 주요 거주지로 하고 있는 거대한 용혹은 뱀처럼 묘사된다(시 74:13-14; 104:26; 사 27:1; 욥 3:8, 40:25-41:26). 욥기 41장은 리워야단을 소름 끼치는 이빨, 단단한 턱, 멧돌과 같은 가슴, 칼과 투창도 뚫지 못하는 단단한 비늘로 덮인 몸, 불이 나오는 입, 뜨거운 연기가 나오는 콧구멍을 가진 수중 몬스터로 묘사한다. 리워야단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강력한 존재이다. 리워야단은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여러 생물의 특징이 혼합된 존재이다. 리워야단은 두 개 이상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시 74:14). 리워야단은 그 힘과 기이한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몬스터이다.

코헨은 특정한 때(“시간, 감정, 장소”)에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욕

22 Jun Kim, “Death and the Afterlife in the Book of Job”, 168.

23 Michael Fishbane, “Jeremiah IV 23-26 and Job III 3-13: A Recovered Use of the Creation Pattern”, *Vetus Testamentum* 21 (1971), 151-167; Leo Perdue, “Job’s Assault on Creation”, *Hebrew Annual Review* 10 (1987), 295-315.

24 Stephen T. Asma, *On Monsters: An Unnatural History of Our Worst Fears* (New York: Oxford, 2009), 186.

망, 불안, 환상”의 감정이 구체화하여 기괴한 생명체로 몬스터가 탄생한다고 이해한다.<sup>25</sup> 리워야단은 욱의 평안한 삶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욱에게 두려움, 무서움,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욱의 삶에 찾아온다. 욱이 세상을 이해하던 가치체계가 위협받아 혼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특정한 시기에 리워야단은 나타난다. 몬스터 이론은 몬스터가 창조되는 시점을 “우리가 세상을 체계화하여 이해하는 방식”이 위협받는 시점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욱기 몬스터의 첫 출현 시점은 이러한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sup>26</sup>

욕은 “날을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소망을 언급한다(욱 3:8). 욱은 “날을 저주하는 자들”의 능력 중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능력을 언급한다. 리워야단이 격동될 경우 일반적인 질서의 시간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밤이 없어질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저주이다.

이러한 리워야단에 대한 언급은 창조 때에 혼돈과의 전투 모티프를 포함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는 최고의 신과 혼돈을 상징하는 강력한 수중 몬스터와 전투를 묘사한 혼돈과의 전투(Chaoskampf) 모티프가 있다(참조. 메소포타미아의 말둑과 티아맛, 우가릿의 바알과 얌). 최고의 신이 태고적 혼돈의 세력을 정복한 후 창조 세계의 질서 혹은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게 된다. 구약은 이러한 혼돈과의 전투 모티프가 암시된 구절들을 포함한다(시 74:14; 89:9-10; 사 27:1; 51:9-10). 욱은 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혼돈을 상징하는 리워야단을 격동시켜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없게 하거나 자신이 태어나지 않고 죽었다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한다.

25 Cohen, 윗글, 4.

26 Grafius, 윗글, 34; Beal, 윗글, 52.

리위야단은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리위야단을 격동시키길 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 이유는 리위야단으로 인해 발생할 혼돈과 두려움이 이미 욥의 삶에 다가 왔기 때문이다. 욥은 이미 그의 생명을 제외한 그의 자녀, 재산, 건강을 잃어 버렸다. 또한 욥은 자신의 가치체계의 기준인 공의로운 하나님을 통치하는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 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는 두려운 혼돈의 몬스터를 격동시켜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끝내기를 소망한다.

몬스터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욥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혹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코헨은 몬스터 이론의 주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로 “몬스터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상 일종의 욕망이다”라고 제안한다.<sup>27</sup> 몬스터에 대한 생각은 때로 금지된 영역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욕망이 포함된다. 몬스터는 기존의 가치체계를 혼돈하게 하며, 금지된 영을 넘어서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괴물은 인간과 신의 영역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침투 가능한지 보여줌으로써 현상 유지를 위협하는 경계 생물로 행동한다.”<sup>28</sup>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를 혼란시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을 리위야단에 투영한다.

## 2) 타자인 몬스터를 통해 본 욥의 정체성(욥 7:12)

욥은 앞의 1장 1절부터 7장 10절까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한 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욥 7:11-21). 욥기 7장 11-21

27 Cohen, 윗글, 16.

28 Heather Macumber, “A Monster without a Name: Creating the Beast Known as Antiochus IV in Daniel 7”, *Journal of Hebrew Scripture* 15 (2015), 2.

절에서 욱은 자신의 불평의 대상을 반복해서 “당신”으로 표현한다. 비록 이 본문은 하나님의 호칭을 포함하지 않지만, 2인칭 대명사 “당신”은 문맥상 하나님으로 명확히 이해된다. ‘나’(욕)와 ‘당신’(하나님)이라는 두 개의 인칭 대명사는 욱의 문제가 하나님과 욱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욕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평하기로 결심한 후 첫 번째 불평이 7장 12절에 나타난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욱은 자신을 몬스터 바다(얌) 그리고 바다 괴물(탄닌)과 비교한다. 욱이 하나님께 불평하기로 결심한 후 처음으로 언급 했다는 것은 욱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일 것이다. 욱은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적대적 몬스터인 얌과 탄닌처럼 대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다수의 학자들이 언급하듯 욱의 이미지는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과 수중 몬스터의 전투 장면인 혼돈과의 전투 모티프를 떠오르게 한다.<sup>29</sup> 얌과 탄닌은 우가릿 신화에서 우가릿 최고의 신 바알의 적대 세력으로 나타난다. 바알은 수중 몬스터와의 대결에서 얌(KTU 1.2 iv. 5-30)을 죽이고 탄닌을 격퇴한다(PRU II.1).<sup>30</sup> 메소포타미아 신화 에누마 엘리쉬는 욱기 7장 12절과 유사한 이미지를 포함한다. 최고의 신 말둑은 태고적 바다의 상징인 티아맛을 물리친다. 그리고 말둑은 티아맛을 절반으로 자른 후 빗장으로 가두고 경비를 세워 감시하게 한다(iv. 130-140).<sup>31</sup>

29 David J. Clines,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17, Dallas: Word Books, 1989), 188-190;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161-163; Choon Leon Seow, *Job 1-21: Interpreta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3), 507.

30 David A. Diewert, “Job 7:12: Yam, Tannin and the Surveillance of Job”,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6 (1987), 203-210. 245-247; 제임스 B. 프리처드,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 외 역), (서울: CLC, 2016), 245-247.

31 Diewert, 윗글, 204; 프리처드, 윗글, 96.

경비를 세워 감시한다는 것은 몬스터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살아남은 몬스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몬스터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사라지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sup>32</sup> 구약의 혼돈을 상징하는 몬스터 역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타날 수 있다.<sup>33</sup> 혼돈과의 전투 모티프는 하나님께서 수중 몬스터의 머리를 깨뜨리고 패퇴시킨 것으로 묘사한다(시 74:13-14; 89:10-11; 사 51:9). 그러나 몬스터는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출현하여 하나님께 다시 도전하고 패퇴하게 될 것이다(사 27:1).

욥기 7장 12절의 이미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욥 자신의 해석”이다.<sup>34</sup> 욥은 하나님이 강력한 몬스터를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을 공격하며, 몬스터를 격퇴시킨 후 감금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자신을 대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욥은 하나님의 적대 세력인 몬스터와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몬스터는 욥과 다른 경향을 가진 타자이다. 욥은 하나님 신앙과 사회 규범을 온전하게 지키려는 경향이 있다면 몬스터는 욥과 달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시키려는 존재이다. 욥은 타자인 몬스터와 자신의 다름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적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그라피우스는 사회 집단은 자신과는 반대되는 차이를 몬스터에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한다.<sup>35</sup> 욥은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는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감시받을 존재가 아님을 항변한다. 자신은

32 Cohen, 윗글, 4-6.

33 레벤슨, 윗글, 65-80.

34 Carol Newsom, *The Book of Job* (NIB 4; Nashville: Abingdon, 1996), 395.

35 Grafius, 윗글, 35.

하나님의 질서를 혼돈하게 할 적대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 대한 자기 해석과 관련 없이 점점 몬스터화 되어 간다. 그라피우스에 따르면 “몬스터는 사회 집단이 자신을 보는 것과는 반대되는 그림을 구성함으로써 정체성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자아상은 항상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괴물 같은 타인은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sup>36</sup> 욥은 자신이 몬스터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지만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혼돈이 있기를 바라는 몬스터와 동일한 시도를 하였다. 욥은 욥기 3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혼돈되기를 원하며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고자 하였다. 욥의 외모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몬스터화 되어간다. 욥의 모습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증기”가 났으며(욥 2:7),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욥 19:20), “썩은 물건의 낱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같은 상황이다(13:28).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혐오를 당한다. 욥은 아내, 친족, 친구, 이웃, 종,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모욕과 조롱, 침 뱉음과 미움을 당한다(욥 12:4; 16:10, 20; 17:2, 6; 19:13-19; 30:1, 9-10). 욥은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타자로 간주된다(“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욥 19:13; 참조 19:15, 27). 프랑켄슈타인이 창조한 괴조물의 내면은 몬스터가 아니었지만 그의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 인해 사람들에게 혐오와 두려움이 대상이 된 것처럼 욥은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며 타자가 된다. 욥에게 일어난 여러 현상들은 욥이 몬스터화 되었음을 보여준다.

---

36 윗글, 35.

### 3) 창조 찬양시에 나타난 몬스터 (욥 9:13; 26:12-13)

욥기 9장에서 욥은 하나님과의 법정 소송을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토로한다. 하나님은 힘과 지혜에 있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욥기 9장 5-13절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시의 형태로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거한다. 욥은 이 본문의 마지막에 몬스터 라합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한다”(욥 9:13). 하나님이 태고적 혼돈과의 전투에서 격퇴한 몬스터에 대한 언급이다(참조. 욥 26:12; 시 89:11; 사 51:9).<sup>37</sup>

구약에서 수중 몬스터와의 전투 모티브는 주로 창조와 관련된 찬양시의 형태로 기록된다(시 74:13-14; 89:9-10; 사 51:9-10). 개인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때 강력한 혼돈의 몬스터를 물리친 하나님의 승리를 떠올린다.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인 몬스터를 패퇴시키고 그들의 한계를 정함으로 혼돈을 통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sup>38</sup>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고난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혼돈의 몬스터를 물리치고 창조질서를 세운 하나님 안에 그들의 소망을 두었다.

그러나 욥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에게 희망이 없음을 언급하기 위해 전형적인 창조 찬양시의 형태를 사용한다. 욥은 하나님과 법정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몬스터를 제압한 하나님이 자신의 상대임을 인식한다. 하나님이 욥을 암 혹은 탄닌처럼 여기고 있다면(욥 7:12) 욥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욥은 몬스터를 제압한 하나님과 법정 소송에서 승소

37 라합을 돕는 자들은 라합의 편에서 전투에 참여한 세력들로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바벨론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쉬에서 티아맛의 편에서 전투를 한 세력과 같이 라합의 편에서 전투를 한 세력으로 이해한다. Habel, 윗글, 192.

38 레벤슨, 윗글, 65-68, 73.



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토로한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에서 몬스터에 대해 한 차례 더 언급한다(욥 26:12-13). 욥은 창조주 하나님이 혼돈의 몬스터에 승리한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리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욥 26:12-13). 앞선 욥기 9장 13절과 유사하게 혼돈의 몬스터를 제압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욥기 9장 13절은 자신이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찬양시를 역설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욥기 26장 5-14절은 욥의 친구들의 입장과 같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에 대한 찬양이다. 지금까지 욥이 취한 하나님에 대한 언어와는 일관적이지 않은 내용이다.

욥의 언어가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회복하였을 수 있다. 친구들이 욥을 설득하였기에 욥과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세 차례의 대화를 마무리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욥의 이어지는 말(욥 27장)은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엘리후와 하나님의 언설 역시 욥이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욥의 언어가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욥은 세 차례의 대화를 통해 친구들이 반복해 왔던 말들을 들었기에 계속해서 유사한 대화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빌닷이 2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에 대해 또 다시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욥은 빌닷의 말 중간에 끼어들어 그의 말을 풍자적으로 흉내 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9</sup> 욥은 몬스터를 제압

---

39 Balentine, 윗글, 380-382.

한 하나님이 자신을 몬스터처럼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이어지는 욥기 27장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리고 욥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로 인식된다(욥 27:2).<sup>40</sup>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몬스터처럼 공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공의롭고 온전하다는 주장을 돌이킬 마음이 없다(욥 27:5-6).

#### 4) 인간 중심적 가치체계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하는 몬스터 (욥 40:15-41:34)

몬스터가 처음 창조될 때 몬스터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가치체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 혐오가 투영되어 출현한다. 인간은 가치체계를 넘어서는 혼돈의 몬스터를 자신과는 다른 타자로 구분하고 공격하고 쫓아내어 기존의 안전을 도모하려 한다. 그러나 몬스터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날 때 몬스터는 인간에게 세상에 대한 인식, 인간의 가치체계, 문화적 가정들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하며 인간들이 몬스터를 창조한 이유를 묻는다.<sup>41</sup> 이 과정에서 몬스터는 몬스터의 라틴어 어원처럼 특별한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신언설 마지막에 욥이 언급했던 몬스터를 다시 소환하여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40:15-41:26). 욥은 몬스터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돈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욥은 몬스터를 격동시켜 하나님의 질서를 혼돈하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욥은 자신을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감시당하는 몬스터의 상황과 동일시하였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몬스터처

40 참조. 강철구,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3집 (2017), 139-164.

41 Cohen, 윗글, 20.

럼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고, 타자가 되었다. 욕은 자신을 몬스터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몬스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몬스터와 같은 자신은 하나님과 변론할 희망마저 없음을 토로하였다.

하나님은 신언설 마지막에 다시 몬스터를 소환하여 몬스터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베혜못과 리위야단을 종이 혼합된 모습,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외모,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몬스터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몬스터를 혐오스러운 존재 혹은 격퇴해야 할 적대 세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혼돈의 몬스터의 용맹함과 위용에 감탄한다(욥 40:19; 41:12). 또한 하나님은 몬스터를 창조질서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타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몬스터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기 혹은 애완동물처럼 묘사된다.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얌)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에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욥 38:8-9). 그리고 어린 자녀를 교육하듯 한계를 정해 주고 한계 이상을 넘지 말라고 가르친다(욥 38:10-11). 베혜못은 소처럼 풀을 뜯고 하마처럼 강물에서 즐거워하는 동물처럼 묘사된다(욥 40:15). 리위야단은 애완 동물처럼 묘사된다(욥 41:5).

신언설은 몬스터가 두렵고 강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캐롤은 “신화의 세계에서 [몬스터들은] 곤혹스럽고 무서운 생물이지만 부자연스럽지 않다. 그것들은 그것들을 만들어 낸 우주론의 형이상학에 의해 수용 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sup>42</sup> 신언설의 몬스터는 시편 104편 26절의 리위야단과 시편 148편 7절의 탄닌처럼 하나님의 조화로운 창조 질서 안에 위치하고 있다. 하나님은 욕에게 몬스터에 대한 재평가와

---

42 Carroll, 윗글, 28.

함께 몬스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섭리, 통치, 혼돈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한다.

신언설 이후 욥은 자신의 인식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한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욥 42:3).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했던 말, 생각,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돌이키고 있음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욥 42:6). 욥은 혼돈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상황 역시 혼돈이라고 생각했던 몬스터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안에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신언설 이후 욥은 더 이상 몬스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불행, 고난, 혼돈에 대해서 창조 세계 전체의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욥의 삶은 새롭게 시작된다. 마치 몬스터의 출현과 사라짐 이후 새로운 창조질서가 시작되듯 욥에게 다가 왔던 혼돈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 4. 나가는 말: 욥기 몬스터에 나타난 문학적 역할과 신학적 의미

욥은 신앙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체계를 온전하게 따르며 삶의 모든 면에서 안정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련의 사건들(자녀들의 죽음, 건강 악화, 모든 재산을 잃음)이 발생하였을 때 욥은 더 이상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온전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동안 욥이 견지하던 가치체계는 혼돈 가운데 빠졌다. 자신이 안정을 느끼던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몬스터는 욥의 삶에 찾아온다.

욥기는 리워야단(3:8: 41:1), 탄닌(7:12), 암(7:12; 26:12; 참조. 9:8: 38:8), 라합(9:13; 26:12), 날렵한 뱀(26:13), 베헤못(40:15) 등의 다양한 몬스터들을 자주 언급한다. 이러한 몬스터는 욥의 혼돈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 모티프 역할을 한다. 문학적 모티프는 특정한 사물, 이미지, 감각, 인물, 혹은 언어 패턴 등이 “한 문학 작품 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혹은 여러 다양한 문학 작품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남을 통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느끼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환경이 조성되는 효과를 얻게 한다.<sup>43</sup> 모티프는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통해 누적되는 효과를 얻게 되며 상호 연관되는 쟁점들을 연결시키면서 주제를 명확하게 한다.<sup>44</sup> 몬스터는 문학적 모티프로서 욥의 혼돈, 불안,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욥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문학적 역할을 한다.

또한 몬스터는 문학적으로 주요한 위치에 나타난다. 욥이 안전한 삶을 살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지 않는 욥기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는 몬스터가 언급되지 않는다(욥 1:1-2:13; 42:7-17). 몬스터의 출현은 욥의 혼돈이 표면화되어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적 대화 본문 안에 나타난다(욥 3:1-42:6). 시적 대화 안에서 몬스터는 전략적으로 주요한 부분에 나타난다. 몬스터는 욥이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기 시작하는 욥기 3장, 욥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하는 욥기 7장,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나는 욥기 26장,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욥기 40-41장 등 문학적으로 주요한 부분에서 나타난다. 특히 몬스터 리워야단은 욥기의 다양한 몬스터 중에 처음(욥 3:8)과 마지막(욥 41:1-34)에 위치하며 수미상관(inclusion) 구조를 형

43 William Freedman, “The Literary Motif: A Definition and Evaluation,” *Novel 5* (1971), 128.

44 윗글, 125.

성한다. 욥이 자신의 불안과 혼돈을 몬스터 리워야단을 통해 처음으로 나타내었다면 하나님은 몬스터 리워야단을 통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창조세계 전체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길 요청한다.

욥은 혼돈과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때로는 무차별적이고 불의하다고 주장하였다. 욥은 하나님이 부당하게 자신을 혼돈의 몬스터로 간주하고 공격한다고 인식하였다. 욥은 몬스터를 혼돈하게 하는 세력이자 하나님의 적대세력으로 생각하였다. 욥에게 몬스터는 혼돈, 불안, 두려움의 형상화였다. 그러나 신언설은 그동안 욥이 생각하고 있던 혼돈, 혐오, 타자의 몬스터와 다르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몬스터가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언설은 혼돈의 몬스터를 적대세력이나 타자로 배제하기보다는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조화를 이루는지 묘사한다. 하나님은 욥에게 몬스터를 인간 중심적 가치체계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창조세계 전체 안에서 욥이 재평가해 볼 것을 제안한다. 욥기의 몬스터는 인간으로 대변되는 욥의 불안, 두려움, 혼돈의 형상화인 동시에 인간의 혼돈과 고난의 의미를 재평가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참고문헌

- 강성열, 『고대근동세계와 이스라엘 종교』 (서울: 한들, 2003).
- 강철구,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3집 (2017), 139-164.
- 김정우, “구약성서에 나타난 신화적 짐승 리워야단, 라합, 용의 영상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5호 (1999), 7-18.
- 김준, “욥기에 나타난 베헤못의 정체성과 역할 (욥기 40:15-24)”, 『서양고대사연구』 59권 (2020), 177-199.
- 방기민, “‘하나님의 싸움’ 모티프 연구로의 초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6집 (2020), 7-40.

- 안근조, “옴과 베헤못 그리고 리위야단: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옴 40-41)에 대한 수사비평적 읽기”, 『신학사상』 126집 (2004), 57-78.
- 유윤중, “우가릿 신화에 나타난 신들간의 전투와 구약성서의 활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집 (2004), 77-98.
- 제임스 B. 프리처드,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 외 역), (서울: CLC, 2016).
- 존 D. 레벤슨,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유대교의 드라마』 (홍국평, 오윤탁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하경택, “‘창조와 종말’ 주제를 위한 동물의 신학적 의의(意義)”, 『구약논단』 30집 (2008), 126-146.
- Ahuis, Ferdinand, “Behemot, Leviatan und der Mensch in Hiob 38-42”,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3 (2011), 72-91.
- Anderson, Bernhard W, *Creation versus Chaos: the Reinterpretation of Mythical Symbolism in the Bible* (Philadelphia, PA: Fortress, 1987).
- Asma, Stephen T., *On Monsters: An Unnatural History of Our Worst Fears* (New York: Oxford, 2009).
- Ballentine, Debra Scoggins, *The Conflict Myth and the Biblical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Balentine, Samuel E., *Job* (Macon, Georgia: Smyth & Helwys Publishing, 2006).
- Batto, Bernard F., “The Combat Myth in Israelite Tradition Revisited”, Jo Ann Scurlock and Richard Henry Beal eds., *Creation and Chaos: A Reconsideration of Hermann Gunkel's Chaokampf Hypothesi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3), 217-236.
- \_\_\_\_\_, *Slaying the Dragon: Mythmaking in the Biblical Tradi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2).
- Beal, Timothy K., *Religion and Its Monsters*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2).
- Bekkum, Koert van (eds.), *Playing with Leviathan: Interpretation and Reception of Monsters from the Biblical World* (Leiden; Boston: Brill, 2017).
- Black, Fiona C, “Beauty or the Beast? The Grotesque Body in the Song of Songs”, *Biblical Interpretation* 8.3 (2000), 302-323.
- Cason, Tomas Scoot, “Creature Features: Monstrosity and the Construction of Human Identity in the Testament of Solom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7.2 (2015), 263-279.
- Carroll, Noël, *The Philosophy of Horror or Paradoxes of the Heart*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0).

- Clines, David J. A., *Job 1-20* (Word Biblical Commentary 17, Dallas: Word Books, 1989).
- \_\_\_\_\_, *Job 21-37* (Word Biblical Commentary 18A;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6).
- Cohen, Jeffrey Jerome (ed.), *Monster Theory: Reading Cul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 Day, John,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Echoes of a Canaanite Myth in the Old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Dalley, Stephanie, *Myths From Mesopotam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0),
- Diewert, David, "Job 7:12: yam, tannin and the surveillance of Job",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6 (1987), 203-215.
- Doak, Brian R, *Consider Leviathan: Narratives of Nature and Self in Job* (Minneapolis: Fortress, 2014).
- Fox, Michael V., "Behemoth and Leviathan," *Biblica* 93 (2012), 261-267.
- \_\_\_\_\_, "God's Answer and Job's Response," *Biblica* 94 (2013), 1-23.
- Freud, Sigmund, "The Uncanny", D. McClintock tr., *The Uncanny* (New York: Penguin, 2003), 121-162.
- Gammie, John, "Behemoth and Leviathan: On the Didactic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Job 40:25-26," John Gammie et al. ed., *Israelite Wisdom* (Missoula: Scholars press, 1978), 217-31.
- Grafius, Brandon R, "Text and Terror: Monster Theory and the Hebrew Bible,"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16 (2017), 34-49.
- Gunkel, Hermann, *Creation and Chaos in the Primeval Era and the Eschaton: a Religio-historical Study of Genesis 1 and Revelation 12*, K. William Whitney Jr. tr. (Grand Rapids, MI: Eerdmans, 2006).
- Habel, Norman C. *The Book of Job*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 Higgins, Ryan S., "The Good, the God, and the Ugly: The Role of the Beloved Monster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Hebrew Bible", *Interpretation* 74 (2020), 132-145.
- \_\_\_\_\_. "Of Gods and Monsters: Supernatural Beings in the Uncanny Valley", Frauke Uhlenbruch ed., *"Not in the Spaces We Know": An Exploration of Science Fiction and the Bible* (Piscataway, NJ: Gorgias, 2017), 93-106.



- Ingebretsen, Edward J., *At Stake: Monsters and the Rhetoric of Fear in Public Cul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 Janzen, Gerald, "Another Look at God's Watch over Job (7:12)",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8 (1989), 109-116.
- Kristeva, Julia,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L.S. Roudiez tr. (New York: Columbia, 1982).
- Lopes, Paulo Catarino, "God created, according to their kinds, the sea monsters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in the water': the centrality of the monstrous in medieval maritime imagination," *Lusitania Sacra* 40 (2019), 117.
- López, René A., "The Meaning of 'Behemoth' and 'Leviathan' in Job," *Bibliotheca Sacra* 173 (2016), 401-424.
- Macumber, Heather, "A Monster without a Name: Creating the Beast Known as Antiochus IV in Daniel 7", *Journal of Hebrew Scripture* 15 (2015), 2.
- Mittman, Asa Simon, *On Monsters: An Unnatural History of Our Worst Fears* (New York: Oxford, 2009).
- Mittman, Asa Simon and Marcus Hensel eds., *Classic Readings on Monster Theory: Demonstrare* Vol 1 (Leeds: Arc Humanities Press, 2018).
- Mobley, Gregory, *The Return of the Chaos Monsters—and Other Backstories of the Bible* (GrandRapids: Eerdmans, 2012).
- Newsom, Carol A. *The Book of Job* (NIB 4). Nashville: Abingdon, 1996.
- Ortlund, Eric, "The Identity of Leviathan and the Meaning of the Book of Job," *Trinity Journal* 34 (2014), 17-30.
- Paffenroth, Kim, "On the Impossibility and Inevitability of Monsters in Biblical Thought," *Interpretation* 74 (2020), 120-131.
- Scurlock, Jo Ann and Richard Henry Beal eds., *Creation and Chaos: A Reconsideration of Hermann Gunkel's Chaokampf Hypothesis*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13).
- Seow, Choon Leon, *Job 1-21: Interpreta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3)
- Tsumura, David Toshio, "The Creation Motif in Psalm 74:12-14? A Reappraisal of the Theory of the Dragon Myt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4 (2015), 547-555.
- \_\_\_\_\_, *Creation and Destruction: A Reappraisal of the Chaokampf Theory in the Old Testament* (Wiona Lake, IN: Eisenbrauns, 2005).

Wakeman, Mary K., *God's Battle with the Monster: Study in Biblical Imagery* (Leiden: Brill, 1973).

Weinstock, Jeffrey Andrew ed., *The Monster Theory Rea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20).

Whitney, K. William, *Two Strange Beasts: Leviathan and Behemoth in Second Temple and Early Rabbinic Judaism*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6).

검색어

몬스터 이론, 구약, 욱기, 리위야단, 베헤못

[ ABSTRACT ]

## A Study on the Monsters of the Book of Job through Monster Theory

Jun Kim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literary role and theological meaning of monsters in the book of Job through the monster theory, which is recently used as an important method for interpreting culture. Recently, research on monsters in the humanities has been widely conducted, such as the fear of humans revealed through monsters, the characteristic viewpoint of the culture in which monsters are created, and the meaning of the appearance of monsters. Monster theory suggests that monsters do not appear meaninglessly when referred to in literature. The appearance of monsters conveys an important message that can interpret the fear, disgust, desire, fantasy, and value system that the culture holds. Also, the appearance of monsters often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ognizing the divine message.

The book of Job frequently mentions various monsters, such as Tannin, Yam, Rahab, the fleeing serpent, Behemoth, and Leviathan. Monsters do not appear in Job's peaceful life, but only when fear and anxiety come to Job, they come to Job's life. Monsters appear at a certain time when Job's understanding of the world is threatened. These monsters serve as literary motifs that symbolically show Job's chaotic situation. Literary motifs gain a cumulative effect through repetition and clarify the

www.kci.go.kr

subject while linking interrelated issues. The monster is a literary motif that creates an atmosphere of chaos, anxiety, and fear in Job. However, unlike Job, God does not exclude the monsters of chaos as hostile forces, but rather describes how they relate to and harmonize with God in creation. God proposes to Job to reevaluate the monster within a whole creation, rather than looking at the monster from an anthropocentric value system. The monster in the book of Job is the embodiment of Job's anxiety, fear, and chaos, and at the same time reveals a divine message to reevaluate the meaning of Job's chaos and suffering.

key words

Monster Theory, The Old Testament, The Book of Job, Leviathan, Behemoth

투고일: 2022년 09월 30일

심사일: 2022년 11월 19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19일

www.kci.go.kr